

‘LNG직도입 가스공보다 무조건 싼 건 아니다’

국제유가 상승 추세와 PNG 도입 가능성 등 리스크 점점 커져

최근 국제유가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향후 러시아 PNG까지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발전회사들의 LNG직도입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발전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국제유가에 연동되지 않는 가스공사의 신규 LNG계약물량(세일가스 등)이 늘어나고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LNG직도입사들과의 가격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LNG직도입 단가는 t당 57만 9211원인 반면, 가스공사 공급단가는 60만 5862원으로 단가 차이가 t당 2만6651원이나 됐다. 지난해도 가스공사 공급단가와 LNG 직도입 단가는 차이가 나서 LNG직도입 회사들의 연료비 절감효과가 컸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과거 가스공사가 다소 비싼 가격에 도입키로 계약한 물량이 종료되고 세일가스 등 신규계약물량의 국내 도입이 늘어나는 데다, 국제유가 상승과 중국 등 가스수요가 급격히 늘

어나면서 비싼 가격에 현물계약을 체결한 일부 회사는 오히려 연료비가 늘어나고 있다.

가스도입계약은 20년 형태의 장기계약도 있고, 5년짜리 중기계약, 단발성 스팟계약 등이 있다. 국내에 수입되는 대부분의 LNG는 유가에 연동돼 유가가 올라가면 LNG가격도 덩달아 올라간다. 하지만 미국에서 들어오는 세일가스는 유가와 연동되지 않아 국제유가가 오르는 시기에는 세일가스 도입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유리하다.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반대 현상이 발생한다.

또 러시아 PNG도 향후 LNG직도입의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파이프라인을 통해 들어오는 PNG는 LNG보다 저렴하다. 가스를 액화시켜서 배에 싣고 재기화시키는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북한 리스크가 워낙 크고, 북한에 가스관 통과로 지금은 미국의 제재대상이어서 러시아 PNG의 국내 도입이 지연돼 왔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호전되고, 대북 제재가

해제될 경우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 연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중부발전과 SK E&S, GS EPS, 포스코, S-OIL 등이 LNG를 직수입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포스코에너지와 동서발전 등도 직수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중부발전은 당장 7월에 비탈과 2020~2024년 5년 중기계약 재협상을 앞두고 있다. 동서발전도 LNG직수입 공급계약 입찰 추진 기본계획안을 수립해 토달, 카타르 가스, 웨브론 등과 가격조건, 계약기간, 연간계약물량, 물량유선 등에 관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후부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가스직도입은 가스공사보다 싸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물량보다는 무엇보다 계약시점과 조건이 중요하다”며 “하지만 향후 국제유가를 전망하기가 쉽지 않고, 러시아 PNG 도입도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시장전망이 매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형석 기자 azar76@

온실가스 감축 CDM사업 공동 추진

중부발전-SK증권-에코아이, 해외 탄소배출권사업 참여 협약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방글라데시) 업무협약’ 체결 후 김신 SK증권 대표이사(정중) 한국중부발전 기술본부장 직무대행, 이수복 에코아이 대표이사(왼쪽부터)가 협약을 들어보고 있다.

한국중부발전(사장 박형구)은 SK증권(대표이사 김신), 에코아이(대표이사 이수복)와 함께 지난 8일 SK증권 사옥에서 방글라데시 가정에 고효율 스토브를 보급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해외 탄소배출권 사업’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부발전과 SK증권, 에코아이는 CDM 사업 일환으로 방글라데시 가정에 고효율 스토브를 보급해 발생하는 CER을 국내로 도입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사업비 투자, CDM 사업시행 및 CER 국내도입, CDM 사업 등록 및 사업관리 업무를 분담해서 수행키로 했다.

방글라데시 가정의 경우 요리시 사용하는 뿔감의 연기가 집안에 노출되는 전통적인 취사방식이 대다수이며, 이를 한국의 아궁이 형태의 고정형 고효율 스토브와 연료를 보급해

집안에 연기가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열효율도 3배 이상 개선돼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온실가스도 5년간 240여만톤을 감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외부사업 지침 개정에 의해 국내기업 등이 해외에서 시행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CER의 국내도입이 가능해지면서 추진됐다. 이미 UN에 CDM 사업을 신청하고, 7월말 CDM 사업이 등록되면 올해 9월부터 고효율 스토브 보급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박형구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방글라데시 고효율 스토브 보급 사업을 시작으로 개발도상국가의 삶의 질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공익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형석 기자

한전KPS, 품질팀장·담당자 회의

“발전설비 정비업무에 완벽한 품질 확보”

발전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는 11일 광주·전남혁신도시에 위치한 본사에서 김법년 사장을 비롯 본사와 사업소 품질팀장 및 담당자 등 90여명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2018년도 품질팀장 및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밑거름이 될 품질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갈 것을 다짐했다.

회의에 앞서 김법년 사장은 “우리 회사의 실체는 현장에 있고, 고객이 신뢰를 줄 때 우리가 존재하기에 ‘고객과 함께하는 기업’, ‘성과 열정이 있는 기업’, ‘세계 최고의 전문정비 기업’이 되기 위해 자신의 명예를 걸고 업무를 수행하자”고 주문했다.

그는 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디테일이 강

하지 않으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영국 왕립협회의 기본 신조인 ‘확인 검증되지 않은 것은 믿지 말고 스스로 노력해 알아내라’의 미를 전 직원에 가슴 깊이 새겨서 품질업무에 있어서도 혼을 다하는 열정을 갖고 협업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품질안전실장의 ‘4차 산업혁명의 시대! 품질경쟁력이 밑거름입니다’라는 강의를 시작으로 ▲원자력 품질이슈사항 대응 및 개선 ▲사례중심 KEPIC QAP-1 ▲절차서 등록관리 ERP 교육 ▲ISO9001 2015년 규격에 대한 이해 ▲공유와 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최창봉 기자 ccb1970@



전력거래소, 중기 공공구매 참여

비품·기념품 구매, 용역상담 진행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택)는 지난 8일 순천한국제습센터에서 열린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상담회’에 참여해 전남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구매상담을 실시하고 소통의 기회를 가졌다.

공공구매 상담회는 도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도가 주최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에는 45개 공공기관과 69개 중소기업 관계자 260여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전력거래소는 이 자리에서 각종 비품과 기념품 구매 뿐 아니라 용역 등에 대해서도 상담을 진행하고, 여성벤처기업인기도 활발한 구매 상담을 벌였다.

전력거래소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는 총 구매액의 66%를 중소기업 제품에 배정했으며, 올해에는 구매 목표를 69%로 잡고 있다.

특히 2억1000만원 미만의 계약건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광주·전남지역으로 제한하는 등 지역 우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사이버보안 전문가 양성 강화

한전KDN, 산업부·고려대와 MOU

정보보호대학원 교육과정 운영키로

한전KDN(사장 박성철)은 4차 산업혁명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보안위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산업분야의 정보보호 인력양성을 강화한다.

한전KDN은 지난 7일 산업부, 고려대와 ‘산업부 주요 산하기관 사이버보안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운영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성철 사장, 박진규 산업부 기획조정실장,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의 2년제 석사학위 과정으로, 오는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총 3기의 교육과정을 통해 사이버보안 전문가 70여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블록체인, 전력제어시스템 등 4차 산업혁명 및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기술 위주의 교육 과목을 신규로 개설하고, 대부분의 산하기관이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인터넷 강의도 확대할 예정이다.

박성철 사장은 “산업부 산하기관의 보안관리능력을 갖춘 전문 인재를 육성하고, 정부기관 및 전문교육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상호 윈-윈(win-win)하는 협력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적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KDN과 고려대는 지난 2010년부터 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은 오는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의 교육과정에 대한 신규 운영협약이다.

최창봉 기자

인공지능형

대기전력 자동차단 자동복구 콘센트

대기전력 자동차단 스위치, 콘센트 사용하세요?

에물단지 취급받는 대기전력콘센트

정부가 주택에 보급 예정인 초·중·고등학교에 설치할 예정인 콘센트

인공지능형 [스]스[로] 척척!

대기전력 자동차단 자동복구

1. 대기전력 자동차단 자동복구

2. 절전·에너지 절약

3. 제품 수명연장 (피복 수면)

4. 절전 후 자동재충전

5. 간편 설치·연결구조

6. 미산화단상, 피복·콘센트, 에너지 절약

7. 절전형 콘센트

8. 절전복구(사용시 2028년 이후) 30만 원 지원 예정 (사실 공적지원, 정부 지원)

세계 최초 탄생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

대기전력, 인공지능으로 잡는다!

제일전기통신(주)

www.jeet.com

인천광역시 계양구 하나지로 418번지, 14-3 (적현동)

제일전기통신(주) T: 032-654-0922

한국에너지공단 2016 에너지효율대상 최우수상

LH 한국도전주택공사 2017 신기술공모 최우수상 선정

특허출원